

보내는 사람

부산시 동구 초량6층 (13/5)  
김 환 구 올림

601-016



받는사람

부산시 동구 수정2층 1-61 (동일빌딩 5층)

민주강 동구리구강

위원장 노 무련 김 귀하

601-032



존경 하는 노 무현 의원님 에게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내 주신 인사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동구 초량6동 13동장을 위촉받아 동네 심부름 하고 있는 겸 한겨울입니다.  
직업은 영동대 평동 소재 대동조선(주) 변전실에 적발제로 근무하고 있는  
전기공입니다.

우리 동네는 산비탈에 위치 하고 있어 생활 환경이 좋지 않으며 31책력에  
저 소득 계층이 많습니다.

주로 부두 노무자 아니면 건축 공사장 인부들입니다.

이른 새벽이면 부녀자들은 "라라이"를 들은 공사장으로 향합니다.

저 짐사캬로 그중의 한사람 입니다.

동장 일을 보면서 회사에서 관리적 사원들의 갖대 높은 고자세의 인간됨을  
배워 지리게 느낍니다.

동네에서는 허락없이 먼저 이사 하고 이웃들이 없는 집에는 무단으로 바꾸고  
가벼운 기원을 대신 심부름로 가청 하여 해 주곤 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태풍때는 러 신경을 쓰긴 동네를 한바퀴 돌곤 합니다.

존경 하는 의원님.

동구에 장마철이나 태풍으로 물난리가 나지 않았더라로 하시는 일에 바쁘  
시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것지만은 12대 주민들과 일언이는 대화가 어렵겠지만  
동구의 말만 동사무소에라도 한번쯤 들려 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실된  
소망 입니다.

존경 하는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제 다시 시각 차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연구소"을 새로 차리고 동구 지구장 운영도 계속 하신다니  
반갑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원을 드리면서 의원님 몸 건강과

자정에 향유이 깃들길 축원 드리면서 난필로 이만 주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2. 5. 15

김 환 기 올림.